

# ‘근대산업유산 보고’ 나주 남평주조장 복원 시급

설립 112년...술독 등 유물 5천여점  
건물 외형 방치로 시설 노후화 진행  
윤여정 원장 “보존해 문화자원 활용”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근대산업유산의 보고’ 나주 남평주조장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시 남평읍에 자리 잡은 남평주조장은 설립된 지 112년이 된 근대산업 유산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크지만,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남평주조장은 대지 592㎡, 372㎡ 규모로 건물 외형이 설립 초기부터 잡목제와 합석, 슬레이트로 지어져 고택이나 사찰보다 보존과 관리가 취약한데다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조장으로서의 건물 원형이 보존돼 있고 근대부터의 주조 변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국실, 냉각실, 발효실 등의 시설과 370ℓ 규모의 술독, 1937년 발행된 조선탁주면허 등 5천여점의 유물이 남아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평주조장은 설립된지 112년이 지났지만 건물 외형(왼쪽)이 보존되고 있는 데다 건물 내부에는 주조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술독 등의 유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존·관리가 시급한 상태다.

고 있다.

남평주조장의 역사성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남평주조장은 드넓은 나주평야를 배경으로 한 때 지역 최고 수준의 주조장 역할을 한 것으로



〈남평주조장 제공〉

알려졌다.

1970년대 나주세무서가 담당했던 나주, 영암, 함

평, 무안 지역에 4개소의 주조장이 성행했으며, 이중 남평주조장은 호남의 곡창지대인 나주평야와 영산강의 풍부하고 질 좋은 물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노동력의 근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 국립민속박물관이 지난 2019년 ‘양조장과 술문화 조사보고서’를 통해 남평주조장의 역사적 가치를 입증한 바 있어 문화재 전문가들의 관심 또한 높다.

나주시도 보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자원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윤여정 나주문화원 원장은 “남평주조장은 역사적인 흔적은 물론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잘 보존돼 있고 관리자의 전문성과 의지 또한 확고해 이를 잘 복원하고 보존할 경우 훌륭한 문화자원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10년 전 주조장을 매입해 관리 중인 윤대석씨는 “남평주조장이 갖는 역사성과 문화적인 가치는 매우 의미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풍부해 이를 잘 활용하면 지역의 훌륭한 문화자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 ‘완도 방문의 해’ 기념 치유 페이 개편

영수증 조건 완화 등 혜택 확대

완도군은 26일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완도 치유 페이’를 관광객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혜택을 더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완도 치유 페이’는 2인 이상의 관광객이 완도군 관광지를 방문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비 금액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만원 상당의 쿠폰 또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다.

기존에는 신청자 본인 1개 카드의 영수증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신청자 또는 동반인 카드

영수증도 증빙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도서 지역 관광 독려를 위해 완도군 7개 섬 지역(금일읍,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중 1곳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증빙할 경우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발길을 완도군 전 지역으로 유도하고 균형 있는 관광 소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완도 치유 페이 신청을 간편하게 할 있도록 누리집을 통한 신청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편된 완도 치유 페이 세부 사항은 완도군청 또는 완도치유페스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 영암군, 민간기업과 ‘소형 풍력발전 추진’ 협약

신재생에너지 기반 성장 동력 마련

영암군은 26일 “지난 24일 군청에서 ㈜에코커뮤니티, ㈜유일과 ‘소형 풍력발전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은 민간협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순환경제 실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 기관은 소형 풍력발전의 성공 추진을 위해 기술·정보 교류,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우승희 영암군수, 이은희 ㈜에코커뮤니티 대표, 유인숙 ㈜유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를 지역발전의 새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승희 군수는 “영암군이 친환경 에너지 확산



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오늘 협약”이라며 “민간기업과 긴밀한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해남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내달 개장

1일 카트 체험·썰매장 등 무료 개방

해남군 두륜산에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체험장이 문을 연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문을 여는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는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복합체험시설로, 자연 속 생태 힐링은 물론 다양한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366m의 카트체험장과 70m 길이 사계절 썰매장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어린이, 청소년 등의 관광객수요를 채울 새로운 장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륜산은 인근 천년고찰 대흥사와 두륜미로파크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해남의 대표 관광지로서, 이번 생태힐링파크의 개장으로 활동적인 체험위주의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의 개장을 기념해 7월1일

하루동안 전 시설 무료 개방 행사가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두륜산 자연 속을 시원하게 질주하는 짜릿한 카트 주행 체험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썰매 체험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체험장은 유료로 운영된다. 사계절 썰매장 이용료는 성인·청소년 8천원, 어린이 5천원이며, 카트 체험장 이용료는 1인승 2만원, 2인승 2만5천원이다.

해남군민과 국가유공자, 당일 해남군 관내 상가를 이용한 후 1인당 2만원 이상의 매출영수증을 제출하는 관광객 등에게는 이용료 50%를 감면한다.

두륜산 생태힐링파크는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138-19번지, 두륜산 케이볼가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가 남도 여행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를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여름 더위 탈출” 강진 3대 물놀이장 무료 개장

내달 19일부터...향토맨발길 등 새단장

강진군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3대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장한다.

26일 강진군에 따르면 무료 개장 기간은 다음달 19일부터 8월7일까지다.

강진 3대 물놀이장은 강진읍에 있는 보은산 V-랜드와 칠량면 초당림, 그리고 도암면 석문공원 물놀이장 세 곳이다.

V-랜드 물놀이장은 시내권과 인접해 군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다. 올해 물놀이장 개·보수를 통해 유아부터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풀장 2개소를 조정했다.

물놀이 미끄럼틀 2개를 신규 설치, 쉼터 면적을 확장, 평상 20개를 추가해 전체 48개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탄성포장과 인조잔디로 통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주변에는 연꽃단지과 보은산 테마공원, 바닥분수에 더해 피서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즐거움과 추억 거리를 듬뿍 안길 계획이다.

강진군 칠량면에 있는 초당림은 여의도 세 배 크기인 980ha 면적에 편백과 백합 등이 가득한 국내 최대 인공림이다. 백제약품 창업자인 고 김기운 회장이 1988년부터 50여년 동안 조성해 온 강진의 숨겨진 관광명소다.

초당림에는 풀장 5개소, 평상 11개, 산책로 2km가 개설돼 자연 속에서 물놀이를 산책을 동시



강진군이 오는 7월19일부터 관내 3대 물놀이장을 무료 개장한다. 사진은 도암면 석문공원 물놀이장. 〈강진군 제공〉

에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석문공원은 기암괴석 등 특별한 볼거리와 길이 111m, 폭 15m의 ‘사랑+구름다리’와 함께 물놀이 조합 놀이대와 모래 놀이공간, 트램펄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새롭게 설치했다.

특히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물 깊이를 낮추는 등 세심한 물놀이장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서 석문공원 물놀이장 특성상 여름철이 지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은 이와함께 보은산 물놀이장 아래 V-랜드공원 일원에 향토맨발길을 개장,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었다.

향토맨발길은 폭 1.8m, 길이 200m로 조성했고 공원 전체를 거닐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보은산 공원-고성사 1km 구간에 꽃무릇 15만 본과 양귀비, 백일홍, 황금 달맞이 등 여러 종류의 꽃을 조성했고, 맨드라미, 베베나 등을 추가로 심어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고성세 뒤편에는 산책로가 넓게 조성돼 기존의 등산로와 달리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걸으며 물과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감성숲길이라 마련돼 있다.

보은산 트레킹 둘레길은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며 탐방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강진=정영록 기자

##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교류 협약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방안 의견 교환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는 “최근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퓨처스’와 협약을 통해 청소년 자치활동 교류 및 참여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서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당기세요’와 ‘퓨처스’ 위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청소년 위원장들의 발표를 통해 각 기관의 소개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청소년 자치활동의 비전과 경험을 나눴다.

이어 리모델링을 마친 공간 구성과 시설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플라잉디스크, 게임스틱 등 다양한 팀빌딩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통의 벽을 허무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지를 다졌으며, 2026년 교류 활동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수진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장은 “이번 교류는 지역을 넘어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주도의 자치활동과 지역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 참여나 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는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061-244-1318)로 하면 된다. /목포=정해선 기자

## 신안군, 세계유산 갯벌에 낙지 4천마리 방류

생태 회복·어민 소득 ↑

신안군은 26일 “지난 24일 세계자연유산 신안갯벌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 균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낙지 4천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의 낙지 방류사업은 낙지 자원량 증

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안군 수산연구사업소와 협업, 암·수 1쌍을 2-3일간의 교접작업 후 방류하고 있다. 교접을 통해 방류한 낙지는 일반적으로 100여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류한 낙지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낙지 굵어기에 방류를 추진하고, 어촌계와 함께

직접 방류함으로써 낙지 자원량 증대를 통해 갯벌생태계 회복과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될 만큼 우수한 생태계를 가진 신안갯벌의 낙지는 우수한 품질을 가졌다”며 “낙지자원의 증대를 통해 생태계의 회복과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